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1972년 7월1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11층짜리 서른세 층의 아파트가 들어선 주거단지를 폭파하여 철거시킨 일이 있었다.

역물린 인간의 이성을 회복시키고 합리적 가치를 최선으로 내세우며 우리 삶의 양식을 바꾸었다. 좋은 제품의 대량공급을 목표로 하며 통계에 근거하여 찾은 표준화라는 방식은 그들의 유용한 수단이었다.

마스터플랜의 망령

표하는 사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신이 문제였다. 도시를 예를 들면 땅을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등으로 칠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눠서 차등하였고 도로를 도로의 폭과 속도를 제한하며 서열화했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져 전세계 방방곳곳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표준적 평면을 가진 집단화된 아파트들, 통계에 의거한 공공시설의 획일적 배분, 빠른 통행만을 위하는 교통계획, 직선화된 길, 각종 주의 표시 등, 어느새 공동체는 사라지고 각 부문의 적절한 배분을 중요시하는 집합체만 남는 도시가 양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20세기의 유일한 시대정신이라고 믿었던 건축가와 도시화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마스터플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를 단호히 예견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이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는데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의 계획을 조리 있게 짜고 해도 수시로 마음이 바뀔 수 있으며, 선과 악을 머릿속에 아무리 구별해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그 혼돈의 와중에 있게 마련이다.

시설

농가 재산성 악화, 정부 외면만 할 건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농심(農心)은 답답지가 않다. 농업을 면세유(農心)는 답답지가 않다. 농업을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등 영농비는 부쩍 올랐으나 농산물 값은 뒷걸음질이니 농민들로서는 '겉시름'이다.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9400원보다 무려 65%나 급락했다. 콩과추와 호박도 각각 2만9800원, 9800원에 거래돼 62%, 52%가 하락했다.

지방 죽이는 '산집법 규칙' 개정 당장 접어야

현 정부의 지방 확대가 해도 너무한 듯하다.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자동차·가전·금형산업 관련 품목이 모두 망라돼 있다. 광주경제를 지방해운 이들 산업이 규제완화를 틈타 수도권으로 U턴 할 경우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로 칼럼

조철웅



노화를 막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다보고 있으면 눈 깜빡임 횟수도 줄어 들어 눈이 건조해지게 된다. 나이가 들면 눈물샘도 위축되므로 눈물의 양도 줄어든다.

기고

김행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2%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는 OECD의 발표도 있었다.

이다. 담보 농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소유농지가 3만m² 이하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눈의 노화

로 노안이라고 한다. 노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 때문이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더 붙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근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물에 초점이 잘 맞지 않게 되어 안 보이는 것이다.

어든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눈물 분비량이 줄어든다.

고령화된 농촌, 농지연금에 답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95%에 이르던 농가소득이 2007년에는 72.5%, 2008년에는 65.3%로 갈수록 차이는 심화되고 있다.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받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대부업체 앞선 대가 불법 수수료 요구 증가 저단속

얼마 전 한 통의 전화가 받았다. 자신을 00캐시 대출 전문 상담원인 여성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앞선해 주겠다는 것이다.

는 것을 문제삼겠다고 하니 약간 잠잠해졌다. 요즘 전신주 같은데 불은 명함 크기의 선 스티커를 보면 톤컨설턴트, 여성팀장, 대출 담당 같은 이름과 직함을 박은 선전자들이 많다.

無等鼓

희망이 샘솟는 봄이 활짝 폈지만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취업이라는 사회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천정부자의 등록금에, 당장 먹을 거리에야 뵈듯하며 하며 소비사회의 양극단을 떠나 들고 있는 것이다.

희애선 오로지 낙오자로 남을 뿐이다. 서울대 소비학과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베스트셀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같은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아프니까 청춘?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circulation.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